

전문번역사들의 NMT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강 수 정
(숙명여대)

1. 서론

구글이 2016년에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 서비스인 ‘구글번역’을 출시하고 네 이버가 2018년에 한국어 알고리즘 기반의 ‘파파고’를 출시한 이래로 이들 기계번역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구글번역과 파파고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과 웹 브라우저를 합치면 파파고만의 월간 이용자수(MAU)만 1천만 명을 넘어선다(한국경제, 2019. 4. 23).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이전의 기계번역과 비교하여 번역품질 면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글의 자체 평가로는 대략 10~25%의 성능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조선비즈, 2017. 2. 9), 파파고 역시 자체적으로 구글보다 번역품질이 27% 정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19. 4. 23). 이전 시기에는 기계번역이 다분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 국한되어 그 사용성을 점검받는 정도로 사용되었다면,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은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용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소위 기계번역의 일상화가 구현되고 있는 듯 보인다.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의 이러한 확장은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학술적 관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번역학 내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발표되었지만,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이 주된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다 구글번역이 출시된 해인 2016년에 4편, 2017년에 14편, 2018년에는 21편의 기계번역 관련 논문이 발표되어 번역학 분야에서도 기계번역 관련 연구가 전체 연구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최문선 2019). 특히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기계번역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빠르게 확장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번역학 관련 논의가 한 차례씩 획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그 변화의 양상에 주목하여 이를 ‘번역학의 전환’이라 칭해 왔는데,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볼 때 현재는 ‘테크놀로지적 전환’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1960-70년대는 언어학적 측면이 부각된 ‘언어적 전환’의 시기였고, 1980-90년대는 ‘문화적 전환’, 그 후 ‘사회적 전환’을 거쳐 현재 ‘테크놀로지적 전환’에 접어들었다(Alonso *et al.* 2015, 신지선 2017: 53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국내 번역학의 연구동향을 내용분석과 키워드분석을 중심으로 제시한 최문선(2019)의 연구에 따르면, 번역학 내의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포스트에디팅이나 번역교육과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 12편에 해당한다. 이는 기계번역이 번역실무는 물론 이미 번역교육 내부로까지 깊숙이 흡수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구글번역이 출시된 지 4년여 만에 번역의 상당한 영역에서 기계번역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기계번역의 빠른 확장은 일반인들에게는 번역의 일상화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사회와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온 번역사들은 과연 번역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이승일 2018: 185). 뿐만 아니라 번역사들에게는 기계가 번역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과 함께 시장에서의 역할이 변할 수도 있다는 모종의 불안감 역시 존재한다.

번역사들에게는 진화하는 기술수용에 대한 두려움, 기계에 대한 정서적 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확인한 이후에는 이를 어떻게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의 활용의 문제가 상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번역이 확장되는 현상을 번역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기계번역의 수용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번역사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어권의 교류를 이끌어온 주체들로, 이들이 기계번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회적으로 기계번역을 수용하는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사들이 기계번역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리고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역할을 규명하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계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이론적 흐름에 맞춰 구분한 후 핵심적 연구문제를 이끌어내고,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기계번역 수용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계번역을 수용하는 번역사들의 심리적·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번역행위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를 도출하여 번역사들의 기계번역 수용 결정과정에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기계번역의 개념과 기술적 발전

기계번역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번역을 인간이 아닌 기계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정보기술분야에서 오랫동안 적용된 자연어처리(NLP) 기반의 응용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데(최문선 2019), 인간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언어적 특성을 기계에 적용하는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은 기계번역 방식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한다. 기계번역은 적용된 기술에 따라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대체

로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고 보고 있다(신지선, 김은미 2017; 임순정, 한미선 2014; 장애리 2017; 최문선 2019).

1단계는 규칙기반 기계번역(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으로, 1980년대까지 주로 적용되었던 기술이고, 2단계는 1990년대 크게 확장된 코퍼스를 활용한 통계기반 기계번역(Statistics-based machine translation, SMT)이며, 3단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기반 기계번역(Artificial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으로 구글번역, 파파고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역 소프트웨어 혹은 번역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기계번역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계번역 연구는 주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 효용성이 크지 않아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가 1단계의 ‘규칙기반 기계번역’이 도입되면서부터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신지선, 김은미 2017). 이는 인간의 번역방식과 동일한 언어규칙을 바탕으로 원천언어(Source language)와 등가 되는 대상언어(target language)를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주로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조성빈, 안효준 2017). 인력소모와 번역오류가 많았지만 자연어 처리의 기초가 되는 형태소분석, 구문분석 등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김미훈 2017).

2단계인 ‘통계기반 기계번역’¹⁾은 원문과 번역문이 함께 있는 병렬 말뭉치인 코퍼스(Corpus)를 대량으로 구축하여 그 조합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이다. 1990년대 IBM이 번역모형을 개발해 소개하였고 최근까지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임순정, 한미선 2014). PC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병렬 코퍼스의 양이 늘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이전의 구글번역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 기계번역인 ‘인공지능 기반 방식의 기계번역(NMT)’은 사람이 학습하고

1) 2단계 기계번역을 코퍼스를 구축한다는 특징으로 코퍼스 기반 기계번역(CMT) 이라고도 하지만, 코퍼스는 언어쌍을 대량으로 구축한다는 특성을 의미하여 기본적으로 언어쌍이라는 번역의 특성에 기반함으로 코퍼스 자체가 기술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CMT로 기계번역 기술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세대 기술 및 3세대 NMT와 분명히 구별되는 통계에 기반한 모형이라는 특성에 따라 이를 통계기반 기계번역이라 칭한다.

기억하는 생물학적 과정의 신경망 구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방식에 기반한다. 신경망의 단층적 구조를 퍼셉트론(perceptron)이라고 하고 이 퍼셉트론이 중층적으로 연결된 다층적 퍼셉트론 구조(MLP: Multi Layer Perceptron)에서 기계번역이 이루어진다. NMT로 약칭하는 이 기계번역 방식은 기존에 제공된 코퍼스를 통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언어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의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즉 기존에 제공되던 SMT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방대한 문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채택하여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김미훈 2017). 어휘나 언어 규칙의 수집이 아닌 인간의 번역물을 대량으로 분석하여 기계가 번역능력을 학습하는 것인데, 입력문의 일부가 아닌 문장에 담긴 모든 정보를 통째로 학습하므로 언어적 정보와 더불어 맥락기반의 언어 외적 정보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번역을 수행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Naver Developers). 인공지능망 기반의 기계번역인 NMT는 2016년도에 기존 통계기반 기계번역인 SMT보다 번역품질이 크게 향상된 ‘구글번역’이 출시되면서 널리 알려졌고 현재 기계번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NMT를 지칭한다. 출시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룩한 번역품질의 성과는 지난 20여 년간 구축된 SMT의 성과를 능가하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최문선(2019)은 기계번역을 NMT가 등장한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표적 NMT인 ‘구글번역(google translation)’은 2016년 8월 영·중 번역서비스를 개시한 후 같은 해 11월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에 인공지능망 기반 기계번역 방식을 적용하였다(신지선, 김은미 2017). 구글은 텐서플로(TensorFlow)라는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구글번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a언어와 b언어를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a-c, c-a, b-c, b-a 번역 학습을 통해 a-b번역이 가능하도록 다중 언어 번역모델도 적용하고 있다. 이 다중언어모델은 여러 개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다른 언어와의 비교가 가능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번역 학습을 하지 않은 언어 끼리도 중간 언어를 매개로 번역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 번역을 ‘제로샷’ 번역이라 칭한다(조선비즈, 2017. 2. 9).

구글의 NMT 출시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한국어 기반 NMT 개발도 이어졌

다. 국내 NMT는 한국어에 적합한 인공지능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특히 이용자인 한국인들의 번역수요에 적합한 언어 쌍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2017년 7월 출시된 네이버의 ‘파파고’는 2019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 누적 2천만을 돌파하였다. 파파고는 주 이용자인 한국인의 번역수요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으며, 실제 번역학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일상적 표현과 구어체에 강하며 번역의 정확도가 한중 언어 쌍에서 압도적으로 높음이 확인되기도 하였다(장애리 2017).

중국의 대표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 역시 2016년부터 오픈 플랫폼을 통한 ‘바이두번역’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바이두의 NMT는 구글이 퍼셉트론 레이어(layer) 3~4개를 결합한 시스템에서 딥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8개 레이어 이상에서도 딥러닝 학습이 가능토록 하여 기계번역 성능 자체로 SMT를 넘어서게 한 최초의 NMT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배재경 2017).

결론적으로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은 구글번역, 파파고, 바이두번역과 같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뜻한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번역사들도 이러한 NMT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번역사들의 번역어플리케이션 수용에 관한 천중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번역사의 59.9%가 구글번역을 사용하고 26.1%가 파파고를 사용하며 바이두 12%, 기타 2.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SMT의 대상이던 특수 목적 맞춤형으로 제작된 기계번역 시스템이나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번역사는 드물었다. 최문선(2019)에 따르면 학술적으로도 ‘자동번역’, ‘기계번역’을 키워드로 검색한 논문들의 연구대상 중 19편(약 70%)이 구글, 파파고, 바이두 등의 번역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따라서 사실상 인공지능망 기계번역이라 함은 이러한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2 기계번역에 대한 품질평가

기계번역은 주로 공학과 언어학이 접목되는 융합적 지점에서 발전해 왔다. 기계적 시스템 측면에서 공학의 역할이 있었다면 언어데이터의 구성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은 언어학이나 번역학의 몫이다. 따라서 번역학에서 바라본 기계

번역 선행연구의 초점은 주로 번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있었다. 특히 NMT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주로 코퍼스 기반의 번역결과 평가에 집중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이전에 출시된 구글번역은 병렬 코퍼스를 활용하는 통계기반 기계번역이었다. 통계기반 기계번역은 부적절한 번역단위를 사용하여 단어가 사용되는 인지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번역단위 선정에 일관된 규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임순정, 한미선 2014). 코퍼스 확보가 중요한 통계기반 기계번역에서는 코퍼스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언어는 중역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어 등 상대적으로 코퍼스가 부족한 언어는 웹기반코퍼스를 활용하는 보완적 수단을 제안받기도 하였다(조준형 2019).

번역학에서 통계기반 기계번역의 품질평가나 오류분석 연구는 대개 기계번역 시스템 개선의 초기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었다(이주리에 2018). 그러나 코퍼스를 활용하나 통계기반이 아닌 비지도학습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번역은 시스템 개선에 번역사나 언어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딥러닝 자체가 블랙박스과 같아서 신경망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도 그 신경망 안에 들어있는 학습된 지식 자체를 사람이 이해하고 재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강대기 2016). 따라서 공학분야의 기계번역이 품질평가와 연관되어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는 것이라면, 번역학에서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는 번역의 결과물에 대한 품질평가와 포스트에디팅을 중심으로 한 번역교육 위주가 되었다.

NMT에 대한 품질평가는 출시된 기계번역 서비스들을 비교해 평가하거나 문체에 따른 번역결과에 대한 연구들로 다양한 상황에서 NMT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장애리(2017)는 구글번역, 바이두번역, 파파코, 한컴인터프리, 스트란 등에서 중-한, 한-중 각기 5개씩 총 10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지닌 파파코의 번역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한 번역품질 검증이 아닌, 연설문, 논설문, 설명문, 기사문, 대화체, 수필 등 문체별 번역수준을 점검한 권도경, 문수정, 김정수, 허윤정(2018)의 연구에 따르면 파파코가 시간 경과에 따라 더 나은 번역결과를 보여주었고, 특히 개념어, 고유어, 비유, 성어, 한자어 등에서 보다 적절한 한국어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학텍스트에 있어서도 문장성분이 모두 포함된 정확한 문장의 경

우에는 번역의 정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NMT는 주로 실용적 문서의 번역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나 텍스트에 복합적 요소가 많거나 번역사의 해석적 활동이 필요한 문학작품의 경우 기계번역은 일정한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마승혜 2018; 이준호 2019a). 특이한 것은 기계번역에도 일정한 문체가 있다는 것인데, 이창수(2019)는 번역사와 NMT의 문체를 비교한 결과 기계와 인간번역사 사이에 분명한 문체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계도 나름의 문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알고리즘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NMT의 품질평가에 있어서 연구자들은 문학텍스트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찾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대개 현재적 시점에서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언어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에 적용하는 기계번역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기계번역의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NMT를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에디팅과 이를 번역교육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들 역시 기계번역의 품질에 대한 평가와 기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포스트에디팅은 기계번역이 1차적으로 수행한 번역결과물을 인간 번역사가 수정하거나 감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무적 적용과 번역교육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개요적 연구는 물론이고 포스트에디팅을 학부 수업에 적용한 결과에 따라 모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이상빈 2018), 석사과정에 포스트에디팅을 적용한 결과(박혜경 2018) 등 포스트에디팅 활용과 번역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연구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기계번역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인간이 개입하는 포스트에디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이준호 2019b), 이는 기계번역의 품질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기에 교육에의 적용과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논의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번역기에 의존해서 글을 쓸 때 번역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있고(이승일 2018), 어느 순간 인간의 협력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마승혜 2018), 현재의 NMT 품질이 번역학자들이 다루어볼 만큼의 성능을 보이고 있음은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계번역이라는 주체가 번역학 내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2.3 기계번역에 대한 도구적 접근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계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품질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NMT의 품질 개선에 기반해서 기계가 초벌 번역을 하고 인간이 포스트에디팅으로 마무리하는 과정과 같이 기계번역으로 번역사의 핵심적인 언어전환능력의 새로운 개발이 강조되는 등 기계와 인간의 협력적 구조가 모색될 수 있다(김순미 2018). 물론 이 과정에서 전문적 훈련을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었던 번역행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한다. 포스트에디팅 등으로 기계와 인간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논의들에 있어서도 그 행위의 핵심적 주체가 기계번역인지 인간의 포스트에디팅인지 모호하며, 현재는 번역사의 역할이 있겠으나 향후 그 결과는 기술 발달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계번역 품질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기계번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대개 번역품질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번역사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번역사를 대상으로 NMT 수용을 최초로 탐구한 연구를 주목해 볼 만 하다. 천종성(2020)은 번역사들이 오랜 기간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의 연결 및 사회적 교류의 중심에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기계번역의 등장으로 번역사들이 기존 번역 개념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인지 혹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기술발전에 따라 이용자 입장에서 수용의 맥락을 평가하는 기술수용모델(Technical Acceptance Model: TAM)에 기반하여 142명의 전문번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조방정식 모델(SEM)에 적용하여 번역사들의 NMT 수용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을 업무와 관련된 도구적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이 업무와 연관되어 유용하며 품질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기계번역을 철저히 업무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주변 동료들의 권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기계번역 사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느낄수록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을 도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을 자신의 업무를 대체할 상충적 관계로 인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 수준에서 번역사들은 도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기계번역을 활용하고 있었다.

포스트에디팅의 활용연구가 많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다수의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번역사들이 기계번역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의 업무나 교육에의 활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번역사들이 기계번역을 수용함에 있어 느끼는 위협감과 유용성의 상반된 인식을 상호 비교해 구체적인 수용방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번역품질이나 활용방안 등과 관련된 규범적 논의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번역의 주체인 번역사가 향후의 번역의 주체가 될지도 모르는 기계번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옳다, 그르다의 문제이거나 수용한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닌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배경

인공신경망 기계번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문학번역이나 맥락적 번역이 중요한 번역물은 제외하고 일반적 수준에서 NMT 번역의 결과가 용인할 만한 품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포스트에디팅을 이용해 실무나 교육에 적용하자는 주장의 전제도 품질에 대한 인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가 일부 실증적 차원에서 도구적 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기계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계번역의 품질평가에 기반한 연구들이 기계번역 자체의 품질과 그 개선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를 활용해야 하는 번역사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한다. 포스트에디팅과 같이 기계와 인간의 협력적 구도로 기계번역 수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 확장과 동시에 이를 수용하는 번역사들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만 그 협

력구조를 형성하는 양 축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품질이 좋으니 수용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계번역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가와 같은 기계번역 수용에 대한 번역사들 내적으로 벌어지는 심리적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서 ‘번역사들은 NMT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그 수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3.2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목적을 가진 대화’로 연구자가 주제에 대해 정보원과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작업이다(나미수 2012). 또한 응답자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자가 아닌 연구자와의 협력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지식의 구성자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와 같은 단편적인 질문과 달리 심층인터뷰에서는 번역사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과 평가, 기계번역의 수용과 관련한 번역사들의 심리적, 사회적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현업에서 번역을 수행하면서 NMT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번역사, 즉 번역실무에 적용을 시도한 경험에 따라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하였다. 연구문제에 적합한 이론적 자격(theoretical qualification)을 고려하여 번역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제한하였고 번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사를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한 달이며 2020년도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의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일 인당 평균 40분~7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는 녹취 후 전문을 필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명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터뷰를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 개요에 대한 프로토콜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번역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최대한의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별도의 설문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제에 대한 질문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되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참여자들

이 구체적 경험과 개인의 생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연구의 결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번역사는 총 8명으로 연령은 30대 1명, 40대 7명, 성별로는 남성 1명, 여성 7명이다. 참여자들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후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평균 경력 15.8년의 전문번역사들로 구성하였다. 번역 언어별로는 영어 4명, 영어+불어 1명,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이다. 인터뷰 내용은 기계번역에 대한 번역사들의 개인적 평가 및 기계번역에 대한 인식 등이며, 이를 통해 기계번역의 도구적 활용과 위협적 인식에 대한 평가 및 그것이 개인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번역사와 기계번역의 미래비전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1 NMT 번역품질에 대한 전문번역사들의 평가

구글이나 파파고 등과 같은 NMT 품질에 대한 전문번역사들의 평가는 언어 조합이나 원문 텍스트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영어와 불어, 영어와 중국어 등의 조합은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어 조합이 들어가는 경우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텍스트의 성격이나 원문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평가도 나뉘었다.

4.1.1 언어조합에 따른 품질평가의 차이

대체로 영어와 불어 같은 서양어 간의 조합일 경우 번역품질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성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와 중국어처럼 어순이 비슷한 조합의 경우에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어를 영어로 옮기거나 서양어 사이 번역은 꽤나 잘 나와요. 일본어도 잘 나오고 특히, 불어의 경우 민망할 정도로 잘 나와요. 영한, 영불, 불한 양방향으로 다 해봤는데, 영한, 한영은 부족하고, 영불은 거의 완벽해요.

80~90% 완벽해요. 영한이나 한영은 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구글의 품질이 꽤나 좋은 편이고, 영중 번역은 바이두의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구글이나 바이두로 영중을 번역하는 경우는 거의 90%가 맞다고 봐요. 중국인 영중번역사가 번역한 것을 볼 때 오히려 구글이 더 번역을 잘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90% 정도는 믿을만 해요.”

하지만 한국어나 중국어와 같은 고맥락 언어이거나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중국어처럼 어원과 문장구조가 전혀 다른 언어 간 조합일 경우 품질평가는 낮았다.

“중한번역에서 기계번역을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번역기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대응, 혹은 치환을 하기 때문에 단문일 때는 쓸만하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결국 다 바꿔야 하는 수준으로 나와요. 그냥 원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번역하니까 다 뒤집어야 해서...”

4.1.2 텍스트 종류와 상태에 따른 품질평가의 차이

단순한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이 아닌 번역에서의 활용인 만큼 전문번역사들의 기계번역 품질평가는 매우 세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8인의 번역사 모두가 언어조합의 차이보다 원문텍스트의 종류와 수준, 원문의 품질(문법에 맞는 올바른 정확한 원어로 쓰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번역품질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술문서의 경우는 매뉴얼 등의 사용설명서, 계약서들을 몇 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한번은 계약서를 돌려는데 매우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 기술문서들을 돌려봤는데, 원문의 종류에 따라서도 번역이 달라지고 원문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도 번역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원문의 품질에 따라 기계에 한계가 있어요.”

“텍스트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건조한 문장들, 드라이하고 직설적인 텍스트들, 예를 들어 우리는 언체 설립해서 수출량이 얼마나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좀 깊이 들어가는 말들은 엄청 유치하게 나옵니다.”

4.1.3 NMT의 장점과 단점

언어조합이나 원문텍스트에 따라 신뢰도에 큰 차이를 보임에도 기계번역을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 번역사들은 주로 시간과 비용의 경제성을 꼽았는데 이들의 진술을 통해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 빠른거, 엄청 빠른거. 붙이마자 확 뜨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잡는 부분은 기계가 우수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트라도스와 비슷한 면도 있는데 트라도스는 돈 많이 내고 써야 하지만 구글은 간단하게 돈 안들이고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대량 번역일 경우 일단 한번 번역기를 돌려놓고 시작하면 편하더라고요. 한일의 경우에는 일본어 한자를 쳐야 하는데 그걸 변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오거나 변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번역기를 한 번 돌리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요. 전체를 돌려놓으면 시간이 많이 절약돼요.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 외에도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접근의 용이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장점으로 꼽힌 반면, 컨텍스트 능력이 없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 구조나 관행상 특정 문법요소가 생략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표현이 원문에 포함될 경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오역이 나온다는 점이 단점으로 추가로 언급되었다.

4.2 번역사들의 NMT 수용 결정요인

번역사들은 NMT를 수용하는데 있어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품질평가는 언어조합과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따라서 품질 외에 번역사들의 NMT 수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천종성(2020)의 연구에 따르면, 번역사들은 주변의 번역사나 지인이 사용을 권할 경우 구글 등의 번역기를 더 유용하다고 느끼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 많이 쓴다고 느끼면 번역사들 역시 NMT를 수용할 의사가 높아

진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주변 번역사들이 전문가 집단이니까 서로 간에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유라면 나도 한 번 써보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며” 주변의 번역사들이 전반적으로 품질을 인정한다면 “도구적인 측면에서 의심이나 확인절차가 생략될 수 있고” “효율성이나 타임셰이빙에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 동료 통번역사가 권하는 것은 완전히 와 닿는 것이 다르다”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다.

또한 품질 외에 NMT 수용을 결정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번역사들은 “사회적 인식이 보편적으로 기계번역을 수용한다면” 기계번역에 대한 자신의 “수용에 대한 태도도 변할 것이며” “사회적 인식이 (수용으로) 통일된다면 번역사들의 기계번역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위에서 언급한 천종성(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번역사들의 NMT 활용 방법

번역사들의 NMT 품질에 대한 인식은 차별적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NMT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업무에 일정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어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번역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모르는 언어의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4.3.1 모르는 언어의 문맥 파악을 위한 활용

번역사들은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 품질의 편차로 인해서 NMT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에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언어적으로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해요. 대략 뜻이라도 파악하는 정도로는 나오니까 편하죠.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는 사용하지 않아요...(중략)... 문맥만 대충 파악하면 되는 경우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르니까요.”

“통역자료를 볼 때는 시간도 없고 빨리 봐야 하니까, 특히 영어로 자료가 오면 구글로 영중으로 돌려서 보고 중국어도 급하게 볼 때는 파파고 돌려서 내용 참고용으로 보지만 내가 돈 받고 납품해야 하는 번역을 구글이나 파파고로 하지는 않아요.”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 번역사들은 ‘언어의 활용’을 이해와 문맥파악을 위한 ‘일반적 사용’과 통번역을 납품하기 위한 ‘전문적 사용’으로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통번역사들이 기계번역에 더 낮은 점수를 주는 이유이기도 한데, 전문 통번역에서 규정하는 A, B, C 언어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어를 잘한다’는 의미 간에 큰 차이가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²⁾.

4.3.2 업무 도구로서의 부분적 활용

지금까지 번역사들은 사전이나 병렬텍스트, 인터넷 검색 등을 번역을 위한 주요 도구로 활용해 왔다. NMT의 등장으로 번역사들의 도구 활용에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이들은 여전히 병렬텍스트와 인터넷 검색, 사전 등을 가장 우선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매우 드물게 NMT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번역사들에게 NMT는 주로 언어 변환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도구, 텍스트를 대신 입력해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인간 번역사가 사전을 보고 국내의 용례를 검색하는 것이 낫습니다. 구글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전적 의미가 나오다 보니 전문 용어를 제대로 번역하는 경우는 아직 거의 없거든요. 영어를 한국어로 그대로 대응시키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을 때는 병렬텍스트 검색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사전, 그 다음이 파파고. 번역에 파파고를 참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자를 대신 쳐준다는 의미가 있는거죠.”

2) 전문 통번역에서 A언어는 모국어, B언어는 모국어로 비금가는 외국어로 A-B 양방향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이며, C언어는 인풋만 가능한 언어로 C-A, C-B의 단방향 아웃풋만 가능한 언어이다. 통번역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정도의 언어는 통번역사의 언어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4.4 번역사들의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평가

번역사들에게 현재 포스트에디팅을 하고 있는지, 포스트에디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함께 통번역대학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4.1 번역실무에서 포스트에디팅의 활용

인터뷰에 참여한 번역사의 대부분은 NMT가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까지 품질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어 전문적 번역작업을 위해서는 감수를 하거나 재번역을 하느라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번역업무에서 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중환이나 한중 번역에 기계를 쓰지 않는 이유는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자연스럽게 때문에, 최소 80% 이상은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돌리면 순서를 죄다 바꾸고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고 귀찮은 거죠.”

“간혹 나에게도 포스트에디팅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람 번역사는 개인의 취향이 있고 문장이 팩트의 나열이라 할지라도 맥락이 있고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영문도 그렇고 우리말은 더욱더 그러하구요. 그런데 기계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독이 있던지 뉘앙스를 깎아내는 경우가 많아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번역을 해야 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에디팅 요청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번역업무의 성격상 품질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나 텍스트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혹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의 후배나 제자들의 포스트에디팅 업무 사례를 확인하고도 있었다.

“말했듯이 기술문서나 기계적으로 A는 B이다가 딱 정해져 있고, 포맷이 정해져 있고 양이 너무 많은, 특히 엑셀 시트 그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낫죠.”

“애들은 해당 번역물이 영구히 보존되고 남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

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해서 따라가면 되니까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의사전달만 하면 되고 스피드가 중요한 번역에서는 누구도 번역결과물을 놓고 태클을 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4.4.2 번역교육에서 포스트에디팅의 활용

통번역대학원의 정규교육과정에 포스트에디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번역사가 전문가로서 시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하면 번역시간을 단축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으며 궁극적으로 포스트에디팅과 번역이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 프리에디팅, 포스트에디팅은 번역교육에 있어 향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번역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잖아요. 의외로 번역사들도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늘 똑같은 패턴, 고정된 표현, 혹은 틀린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교육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이유로 통번역대학원에서의 포스트에디팅 교육에 반대하는 입장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원론적으로 보면,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에디팅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디팅을 통대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요. 차라리 번역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더 번역을 잘 가르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와 함께 시장을 명확히 구분해서 목표 시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통번역대학원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기계번역을 포스트에디팅 하는 작업은 통역대학원에 들어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되냐? 그건 그냥 영어나 좀 잘하는 애들이 기계 사용방법만 알면 되잖아. 내가 보기에는 업계에서 회사 담당자들 있잖아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업계 용어는 잘 알아서 번역 결과물을 보고 오류를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 컨텍스트를 잘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좋지 번역사들이 활

용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통대 출신 통번역사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기계가 못하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기계가 못하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오히려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 같은 걸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포스트에디팅은 그동안 인간만이 수행하던 번역작업이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라는 형태로 변화하는 일종의 번역업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번역사들은 대체로 현재 포스트에디팅을 현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사용하더라도 일부 제한적인 텍스트와 업무에 한정하고 있었다. 번역사들은 포스트에디팅에 있어서는 번역능력보다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NMT에 대해서도 비전문가가 업무에 도움을 받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이 수행하게 될 영역 이외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번역교육을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5 NMT 시대 번역의 미래와 비전

마지막으로 향후 기계번역의 품질이 더 좋아져서 사람이 손댈 일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지, 만일 그런 시기가 온다면 번역사와 NMT는 어떠한 관계가 될 것이며 번역사는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인간의 손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의 기계번역은 불가능할 것이라 답하였고 향후 시장을 일반번역과 고급번역으로 양분해 정확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

4.5.1 일반번역의 가치하락

응답자들은 NMT가 완벽한 번역물을 내놓고 있지 않음에도 벌써 번역회사들이 “단순한 번역은 번역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번역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우수한 번역이 아니어도 된다. 대충 뜻만 파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험을 증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추세라면 “번역사라는 직업이 없어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은 다운될 것이고 번역기의 수준이 올라간다면 번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위협감으로 일부 번역사는 NMT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구글번역을 쓰면서 ‘이 번역을 개선하시겠습니까?’하고 나오면 절대 안해요. 소심한 복수죠. 내 것을 빼간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며 기계의 도움은 받되 더 위협할 것이 두려워 기계의 개선을 돕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NMT를 경쟁상대로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5.2 고급번역의 가치확장

기계번역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일반번역의 가치가 하락하고 시장이 줄어들겠지만, NMT가 대체하고 있는 “시간 싸움인 작업들”이나 로컬라이제이션 등은 전문번역사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번역사들은 일반 번역 시장을 중심으로 위축은 되겠지만, 어차피 다른 시장에 있기에 위협은 느끼지 않는다는 향후 “섬세하게 뉘앙스를 살리는 작업들은 사람 번역사에게 일이 더 많아질”거라 전망하였다.

“고급번역사의 수요는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의 임원급들은 영어로 직접 소통을 하지만 보다 섬세한 뉘앙스 파악을 위해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지사의 내부 소통을 이해하고자 글로벌 본사에서 해당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뉘앙스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부인력들도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데 그럼에도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거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본사에 전달할 때 세심한 뉘앙스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으려면 퀄리티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던 시절은 이제 끝났고 보다 전문적이고 뉘앙스를 살릴 수 있는 번역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기계번역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죠. 잃은 시장을 볼 것이 아니라 사람 번역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보다 집중해서 개발해서 네이티브처럼 나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의 번역수요는 향후 더 늘 것이라고 봅니다.”

4.5.3 세분화된 영역에서 인간 번역의 가치 확장

NMT의 등장으로 번역사들은 일반번역의 가치하락과 고급번역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A-B번역, 문학번역 등 세분화된 영역에서 전문번역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세분화된 영역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팩트만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뉘앙스까지 섬세하게 전달하고 싶어해요.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했으면 좋겠다’, ‘무례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과 같이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영어 중에서도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을 궁금해 하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작업은 사람 번역사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이유로 인간의 언어사용의 불규칙성이 다수 언급되었다. 마치 통역 현장에서 연사의 언어표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스처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 이해에 도움을 받듯이 한국어가 출발어인 대부분의 경우 “기계가 이해하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들은 기계가 인간의 고맥락성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인간번역사만의 분야를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의 발전을 통해서 포스트에디팅 등 번역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이 오더라도 그 영역은 일반번역이나 로컬라이제이션 등 텍스트 성격에 따라 제한적인 영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좀 더 섬세하고 맥락이 깊다고 할 수 있는 고급 전문 번역시장의 인간번역사에 대한 수요는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NMT의 등장으로 번역시장과 산업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NMT의 확장이 번역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번역사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수용양상은 어떠한지를 전문번역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한 NMT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계번역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번역사들의 NMT에 대한 평가와 수용의 결정요인, 포스트에디팅 등의 반구조화 된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번역사들은 대부분 기술기반이 확장되어 현재의 수준보다 진화된 기계번역이 나올지라도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한적인 분야와 상황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기계가 할 수 없는 특화된 고급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NMT 등의 기계번역은 특정한 언어조합, 저맥락 텍스트, 난이도가 낮은 일반 번역시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번역사들도 자신이 잘 모르는 언어에 대해서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NMT를 활용하듯 일반인들이 업무에서 기초적인 자료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관련 번역업무는 이미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고맥락 텍스트, 뉘앙스가 중요한 텍스트 등과 같은 전문적인 고급 번역시장에서는 인간번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통역현장에서 언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비언어적 요소에 기대어 구별하듯이 원문이 완전하지 않은 문장, 섬세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전문번역 등은 지금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NMT의 발전과 함께 번역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양극화가 예상되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번역사들은 NMT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언어조합에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NMT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이미 하나의 대안적 도구로 자신의 업무에 NMT를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동료 번역사들의 사용기대와 사회적 인식인식이 NMT를 인정한다면 그 사용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기존연구(천중성 2020)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인간이 수행하던 번역작업이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변화하는 일종의 번역업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에디팅에 대해서는 현업에의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번역사들은 포스트에디팅은 번역능력보다는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전문가가 기계를 사용하여 업무에 도움을 받는 도구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번역사들은 기계번역이 수행하게 될 분야 이외의 인간만이 가능한 영역에서 번역교육을 개발

하고 확장할 것을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번역사들은 NMT에 대해 품질중심의 수용태도를 보인다. 언어 조합이나 원문 텍스트에 따라 제한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문번역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NMT의 성능이 충분한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전문번역사들은 현 수준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을 구분하기보다는 자신의 번역업무에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선택했다. 다만 향후 NMT의 발전에 따라 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일치된 전망이 나왔다.

이 연구를 통해서 번역사들이 NMT 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도구적 활용이라는 수용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심층인터뷰 참여자들이 10~20년 경력의 시니어 번역사들로만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시장에 막 진입하기 시작한 주니어 번역사들이 기계번역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수용방식을 가지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기에 연구 결론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NMT에 대해 다양한 세대에 걸친 수용의 태도와 방식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대기 (2016) 「딥 러닝 기반 기계학습 기술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 12-24.

권도경, 문수정, 김정수, 허윤정 (2018)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중한 번역 현황 -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98 권: 233-267.

김미훈 (2017. 11. 30) 「카카오 AI 리포트- 기계번역기의 역사와 발전」, 『카카오 정책산업연구』, <https://brunch.co.kr/@kakao-it/156>

김범수 (2017. 2. 9.) 「구글 인공신경망의 ‘매직’...“몇십년 걸릴 번역 성능 개선 1년만에”」,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9/2017020902687.html

김순미 (2018) 「AI 시대 인간번역과 기계(NMT)번역의 공존 - 경영학 ‘확장(Augmentation)전략’ 중심」, 『통역과 번역』 20(2): 1-32.

김위수 (2019.4. 23) 「파파고, 월이용자수 1000 만 돌파」,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2302109931033001

김주완 (2019. 4. 23) 「국민 번역 서비스’ 된 네이버 파파고... 구글 제치고 月 사용자 1000 만 돌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42355931>)

나미수 (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마승혜 (2018)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65-88.

박혜경 (2018) 「석사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9(3): 163-193.

배재경 (2017. 11. 30) 「카카오 AI 리포트- 신경망 번역 모델의 진화과정」, 『카카오 정책산업연구』, <https://brunch.co.kr/@kakao-it/155>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신지선, 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이상빈 (2018) 「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관한 현상학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18-143.

이승일 (2018) 「AI 번역의 속성 및 번역주체에 대한 논의」, 『통번역학연구』 22(4): 183-209.

이주리아 (2018)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한일/일한 번역 품질에 대한 예비연구」, 『통역과 번역』 20(1): 43-71.

이준호 (2019a) 「문학번역 적용을 위한 기계번역의 현주소」, 『통번역학연구』 23(1): 143-167.

이준호 (2019b) 「신경망기계번역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예비연구」, 『통번역학연구』 23(3): 171-202.

이창수 (2019) 「문학번역에서의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문체에 대한 전산문체학적 비교 연구」, 『번역학연구』 20(2): 111-130.

임순정, 한미선 (2014) 「구글 번역의 사례연구: 번역품질과 번역단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177-209.

장애리 (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한중언어쌍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171-206.

조성빈, 안효준 (2017)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기계번역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인지부조화와 만족도의 관계 분석」,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116-131.

조준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번역학의 방향: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의 역할과 기능」, 『번역학연구』 20(2): 153-182.

천종성 (2020) 「전문번역사들의 기계번역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281-288.

최문선 (2019) 「국내 번역학 기계번역 연구 동향」, 『언어학연구』 24(1): 275-297.

Naver Developers 자료 Available at <https://developers.naver.com/products/nmt/>

[Abstract]

Study on Translators'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NMT — Based on in-depth interviews

Kang, Su Ju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delves translators' acceptance of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 such as Google Translate and Papago. Translators have long served as communicators, bridging various cultures and societies. At a time when translators feel threatened by the emergence of NMT and when its utilization receiving conflicting opinions, this study uses in-depth interviews to explore translators' attitude toward NMT and how such attitudes are formed.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ranslators recognized NMT, which was thought to threaten the position of translators, as a kind of tool. Translators think that while some language combinations and some text types allow for reliable quality of NMT, NMT's translation quality is not yet reliable when it comes to the sphere of professional translation, mainly performed by the interviewees. However, it was found that if peer translators recommend using NMT or if social awareness of NMT is improved, translators are also likely to accept NMT. Moreover, with the advent of NMT, translators predicted that the translation market would be polarized and divided into the general and the professional markets. Translators believe that post-editing is not a job fit for experts, but rather a tool that can be utilized by the general public and expect translation to evolve in a way that is better suits the needs of the professional translation market and not the general.

- ▶ Key Words: NMT, machine translation, technical acceptance, translator, post-editing
- ▶ 주제어: 인공지능경망기계번역, 기계번역, 기술수용, 번역사, 포스트에디팅

강수정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xiaojiang@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교육, 학부통번역교육, 미디어통번역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